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 세미나 종합 토론 -

- 일시 : 1996년 9월 20일
- 장소 : KBS제주방송총국 TV 공개홀
- 주최 : KBS제주방송총국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후원 : 제주도
- 개최식
 - 개회사 : 김형준(KBS 제주방송총국장)
 - 격려사 : 신구범(제주도지사)
- 세미나 주제 :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 제1주제 : 제주인의 의식
 - 제2주제 : 제주정신의 정립
- 사회자 : 고성준(제주대 동아시아 연구소장)
- 발표자 : 김항원(제주대 교수), 김진영(제주대 교수), 강근형(제주대 교수)
- 토론자 : 양영식(통일원 남북회담 자문위원), 신행철(제주대 교수)
 이영길(도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기(한은 제주지점장)
 천병헌(신라호텔 이사), 한림화(소설가)
 문인수(KBS제주방송총국 보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의식 대토론회에 사회를 맡은 고성준입니다.

도제 승격 50주년을 맞는 우리 제주사회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50년을 돌이켜 봐야 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21세기의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21세기는 새로운 흐름으로 인해서 격변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새로운 흐름은 지금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제주사회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제주의 미래의 발전의 관건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제주인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KBS제주방송총국이 기획을 하고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도민 의식조사를 지난 4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도민 의식구조 조사분석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회자 : 도민의식 구조에 대한 오늘 발표를 크게 영역을 넷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정치 및 관광개발의식, 두번째는 사회의식, 세번째는 문화 및 생활의식, 마지막은 제주 사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식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인, 제주정신 정립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주인의 정치 및 관광개발에 관한 의식을 강근형 교수가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근형 교수의 발표)

사회자 : 강교수님의 발표를 듣다 보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가 약 80%가 넘고 있습니다. 선거 때의 약속을 선거 후 당선되었을 때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감이 상당히 높다는데 대해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영길 위원님께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 이 문제는 우리 나라 국민이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의 길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보면 전통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유당은,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면서 자유당도 몰락했습니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므로써 공화당도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민정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정당들이 순수하게 자리 매김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정부라는 형태는 있지만 정권적 차원에서만 존재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지면 정치도 전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행태가 되어왔고 많은 정치인들이 정권유지에 몰입되어왔기 때문에 바른 정치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고통은 생활과 괴리된 정권 속에서 모든 자기의 생애를 걸어 정치인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관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는 그러한 관용성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고 지방자치를 관리적 측면에서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의 관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걸어가려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의 정치개념과 제도, 지방자치법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은 되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될 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역 이해,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주민을 대립시키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지역의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팽개친 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정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국정본질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통성이라든가 정치체계 속에서의 어떠한 룰(rule), 또 사법부면 사법부, 입법부면 입법부 나름의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수준 낮게 행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타개해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질 수록 이러한 선거공간 속에서의 선택의 길이 바르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풍토도 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더 눈을 밝혀서 정치인들의 일거일동을 모두가 국민의 주시 속에서 감시하고 판단해서 정치인들의 행로를 바르게 나가게 만들 수 있도록 감시해야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힘으로는 상당히 모자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활약해야 될 부분은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어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반 정치에 대해서 도민에게 와 닿는 그러한 도정을, 의정을 펴나가는데 일익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영길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의 꾸짖음, 유권자의 높은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양영식 박사님, 그 동안 국회의원 선거 또는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를 꼭 지켜보면서 제주도 선거의 특색, 이런 얘기들을 정치학자들은 하곤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 무소속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져 왔습니다. 즉 이것은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의 됴됨이다' 하는 게 강근형 교수님의 조사 결과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지역의 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결과적으로 안게 되더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사회의 그 동안의 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영식 : 강근형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 공감이가는 대목이 '제주사람들은 투표 행

태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행동하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한국 정치사에 잘못된 과거의 역사가 우리 제주정치에도 투입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그 동안 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4·19혁명 직후에 민주당 정부를 제외하고는 민주적인 정통정부가 사실상 없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도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정치사에 있어서 특별히 특이하게 다른 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민 의식은 토끼처럼 앞에 나가 있는데 오히려 정치엘리트의 민주의식은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을 해왔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과거 역사를 회고해 봅니다. 우리 '제주도 정치'하게 되면 마치 여촌야도의 선두주자처럼 '제주도는 무조건 여당을 찍는다', 이처럼 제주도 사람들은 민주의식도 크게 뒤쳐진 것처럼 과거에 정치계와 언론이 매도를 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19혁명 직후의 선거때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 없고 깨끗한 흥문중이, 고담용이 찍으라' 이와 같은 논리가 결국은 최초의 공명선거를 통해서 제주사람들의 표의 향방이 가름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끄럽던 군사정부때, 1971년도로 기억하는데, 대선때 우리 제주도의 꼬마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파도, 마라도에서 야당 후보가 앞질렀습니다. 그 당시 권모지사는 어떻게 분개를 했는지 자기는 '물질행정은 잘했는데 정신행정에 실패했다'. '제주 사람들에게 감귤도 보호정책을 잘해줬는데 말하자면 보답을 잘못했다'. 이런 식의 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제주신문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서울에 있던 저희들은 군사정권하에서 최초로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만 놓고 봤습니다만, 우리 제주인의 정치행태라는 것은 냉소주의로 일관되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인의 표의 향방에 대해 그렇게 냉소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여론조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상당히 잘되었습니다만, 물어보면 답이 다 그렇습니다. '게매 마썰양', 이 말 속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측면이 많습니다 '글썸 뻘히 다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시오'라는 뜻이죠. 의례적으로 여론조사는 것은 과거에는 합리화하려는 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인들은 으레 '글썸 게매 마썰예'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제주인의 역사적인 기상이 서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인의 근대사만 보게 되도 이씨 조선 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정부가 선 이후에도 4·3이라는 그러한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고뇌 속에서 우리 선열들이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제주정신의 상당히 아픈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사람들이 무소속을 선호해서 무소속이 아니라 여당으로 나와도 그 사람이 진짜로 제주사람의 의식을 대변하면 여당을 찍고, 야당인사가 나와도 훌륭하면 훌륭하면 야당인사를 찍었고, 또 무소속이라도 그분이 훌륭한 제주인의 정치의식을 대변하면, 그 무소속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거때 개발법 논법을 따져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인물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빈 곳'바 공청회를 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할 때 제주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당인가, 야당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당이기에 때문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제주사람들은 정치적인 기습공격을 잘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이 마치 무소속을 선호했으니까 이번도 무소속으로 나가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제주인의 정치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을 비판한 것이고 또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돈정치, 관권정치, 그 속에 제주 사람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냉소주의적인 정치의식이 제주인의 마음에 자리잡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이 중앙에 가고 제주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돈선거, 관권선거는 제주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자 : 문인수 국장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4년째 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모자라다', 또는 '관료주의가 강하다', 또는 '적당주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진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인수 :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라든가, 무사안일, 사명감 부족 같은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로 해서 형식상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열렸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 의회, 이런 것만 가지고 완전히 지방자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껴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물론 달라져야만 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구석들이 여러군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발생한 제주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의회에 들어가서 점거 농성하는 사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의 파벌주의, 관료주의 또는 연고주의에 얽매이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뽑은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사명감 부족, 적당주의, 관료의식이 '매우 많다'와 '다소 있다'고 하는 비중이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주가 지역이 좁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한다고 해도 서귀포 아니면 성산, 제주시 왔다가 다음엔 북제주군에 가서 근무합니다. 이래서 한시간 생활권이 제주도에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는 어떤 자기 도그마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파가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어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겠죠. 주민들도 확실하게 우리가 뽑은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의식을 표출할 때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가 못된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없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사회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가 또는 이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불신 해소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고 이를 연구해온 학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지금 해주신 질문은 토론이 다 되고 나서 강교수한테 보충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김영기 지점장님. 그동안 제주가 70, 80년대에 외향적 개발을 쪽 해왔습니다. 특히 관광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들에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살기가 좋아졌고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부정적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발 이익이 도민에 고르게 나누어주지 못했다든지, 또는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든지, 최근에 일부 마스크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관광의 부작용, 구체적으로 성도덕의 타락문제라든지 제주인들의 쾌락문화 지향적인 현상이라든지, 청소년의 비행이 크다든지, 대체로 그 동안에 개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점장님께서서는 이렇게 상반된 의식 속에 있는 개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기 : 관광개발이 제주지역경제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1970년부터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온 이래 최근까지 관광 수입 측면에서 보면 관광개발을 시작한 1970년도에는 관광수입이 단지 7억 5천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도인 작년에는 제주지역 경제 총생산액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1조여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수입을 근본으로 해서 관광산업

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의 70%를 좌우하는 그런 규모로 관광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제주지역에서의 제주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하는 데는 공감감이 갑니다. 또 의식조사 결과 85%가 '나는 제주인임을 자랑한다'에 동의하고 있고, 70%이상이 '육지에 직업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육지에 가지 않고 제주도에 살겠다'고 하는 제주인의 드라이드 내지는 제주인임을 자랑하는 배경에는 관광산업이 감귤산업과 더불어서 제주도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만 어떻게든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제주지역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줬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이 초기에 이루어질 때는 이게 일관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소홀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익분배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주민들의 참여를 소홀히 한다든지, 지방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신행철 교수님, 그 동안 관광개발,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해오고 계신데, 설문조사에 보면 관광개발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반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행철 : 결론적으로 보면 두가지 다입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의견수렴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신 강근형 교수가 발표를 하신 내용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에 대한 불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성장 정책, '선성장 후분배'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지역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개발하는 자본이 결국은 정치적인 뒷받침속에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여기에 관은, 사실 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의 집행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업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관은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주개발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를 가

지고 들어온 기업가가 관하고 결합이 되니까 결국 개발을 할 때는 관하고 결합이 되니 관에 대한 불신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개발 사업자가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해서 들어온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개발이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개발사업, 이것은 뭔가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대주민홍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은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하는 개발사업을 사업허가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수렴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수렴 방식도 잘못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개발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를 종합하는 조사로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제가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주신라호텔 천병현 이사님하고 도의회 이영길 위원장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저희들 조사에 보면 개발의 주체에 관한 문제에서 도민중심의 개발에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면에는 그 동안의 외부 또는 외지 사업가에 의한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지자본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기업가, 도민자본이 합쳐지는 이런 자본조달 방법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신라호텔을 지을때부터 제주에 오셔서 꼭 지켜보신 천이사님께, 다음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이영길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천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현 :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 중에 저 혼자 제주사람이 아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매년 일년에 한 번씩 경영관리자회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배경이 매년 환경이 바뀌니까 저희 생각도 좀 바꿔보자. 이런 바뀌진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만들어서 이걸 잘 실행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매년 계획합니다. 제주도가 도로 승격된 지 50년만에, 50년동안 엄청나게 환경이 변했을 텐데 어느 만큼 변해왔는지,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심도 높은 토론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

각이 듭니다.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가(土地價)가 상승했거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익을 얻었거나 아니면 고용증대로 인해 직접참여를 했거나한 분들은 개발이익을 얻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즉흥적이신거 같아요. 지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니 까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이 제주도에 있는 건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주신라호텔도 제주도에 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제주신라의 재산이거나 또는 삼성그룹의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재산이고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재산을 저희들이 여기다 남겨 놓기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그런 것 등등을 제주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제주도의 재산, 가치를 증가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한 500여명이 되는 직원들 대부분 제주도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도 아마 도민들한테 다 돌아갔을 겁니다. 매출전체의 대부분 수입하는 물건이나 저희들이 없어서 외지에서 물건을 빼고 나머지 전액은 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거니까 최소한 호텔 신라 한 기업체만 보면 매년 500억 정도를 제주도에 남겨놨다고 생각하는데 도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 사람들한테 돌아간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가 사실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들 개개인이 의식을 좀 바꿔주십시오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을 하는 기업체의 홍보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를 이끌어나가는 각계각층의 리더들, 말하자면 제주도에 계신 선각자께서 도민들을 설득하시는 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언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제주신라를 개발할 때 도민의 의견보다는 사실 관광객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잘 되어서 관광객도 좋고, 도민도 좋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다 좋아야 하는데, 앞으로 관광만이 제주가 살 길이라면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도민보다 먼저 관광객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런 것을 여기다 해야지, 이것이 정말 도민들 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이런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도민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가 뭘니까, 세계화·우주화 시점에 와 있는데 제주인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면, 그 다음에 관광개발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관광객들을 제주도에 유치하려면 그분들이 될 원하는지, 저희들이 될 만들어야 되는지, 될 개발해야 관광객들이 만족할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도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도민들의 설득도 개발주체가 되는 기업체, 관공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언론 등,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제주도의 미래가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찬란한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고민도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 아까 신라호텔이 삼성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좀 더 제주신라호텔이 경영이 잘 되어서 가시적으로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길 위원장님, 지금 천이사님께서도 외지사업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영길 : 천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공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신라호텔 단위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 정책입안자들의 견해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를 창출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만일에 관광수입의 조수익이 7,000억 원이라면, 한국은행의 통계로서는 2,500억원이 순식간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출 방식이 정말로 그대로 믿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의 것들이 제주도에 많은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관광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 인구가 4백만이라고 그러면 350만의 내국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불과 50만이 외국인들이 왔다 갔는데 그 외국인들도 대개는 중국인 아니면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지역경제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중문관광단지를 만듦으로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쪽에서 전부다 보내곤 합니다.

저는 구라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3천5백만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그 중에서 티롤지방에 2/3가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의 중심도시에 큰 호텔이 지어져 있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호텔과 대개 민박입니다. 그곳은 국민관광단지로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알려져 있어서 국제관광단지로 그렇게 됐는데 맘모스 시설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은 그러한 시설로 가고 있질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개발은 대단히 큰 단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주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적응력을 갖지 못합니다. 행정부에서는 도민주체 개발의 모형을 제시해 주어야 됴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로서는 가

족단위로 그렇게 커다란 호텔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한 방만한 것들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관광상품에 대단히 고가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정부 각료회의에서 관광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년동안 관광문제는 입병곳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의 관광정책이 그렇게 낙후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들이 벌써 컨벤션센터를 다 짓는 동안 우리 나라만 잠자코 있었어요. 그래서 외화획득의 소득을 제2차 산업에만 주력해왔는데, 3차산업에는 이제야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관광개발은 그 지역의 메리트(merit)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사이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제주도에 왜 조랑말을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승마코스가 없습니까. 따라서 승마장에밖에 말을 못 타죠. 코스가 있어야죠. 스쿠버는 유명한데 왜 스쿠버 시설은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시하면 커다란 호텔을 짓지 말라고 해도 덤빉니다. 왜냐하면 메리트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은 이제까지 거꾸로 개발을 해왔고 지역경제 소득에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기여를 해오지 못했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상대적 빈곤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주도 2차 종합개발에 반영하고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2차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보통 때보다는 20% 내지는 80%를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다 인가를 받고 한 특별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고 이것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광주, 일본까지 다니면서 이게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러한 국고보조가 20% 내지는 80%가 제주도에 일정량씩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별 때같이 덤벼듭니다. 정부에서 제주도는 투자성이 약하다, 관심 없다고 하니깐 덤비질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지사께서 많이 돌아다니고 하지마는 지금에 와서 이런걸 타할게 아니라 제주도에 투자하는데 민·관이 투자합작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관으로 해서 가장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에 제3섹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라든지 경영의 마인드에서 제주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모델을 제시해주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민의 고민은, 제주도에서 뭘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큰 규모의 호텔이 불필요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기간 필요하고 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계층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개발의 시작이라든지 그러한 지역경제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는 개발의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발자체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소득을 높여야 됩니다. 만일에 그러한 것이 안나 온다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일방적인 탐욕가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자 : 토론자들 사이에 얘기를 더 주고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민 의식 조사를 다뤄 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교수님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문인수 보도국장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즉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강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강근형 :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의식의 해소책은 아마도 우리 나라가 문민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부터 문민정부로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역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윗사람의 눈치가 중요하고 민(民)의 소리는 약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뽑는 자치단체장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들은 사실 일반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되니까요. 이런 분들이 시빌 써번트(civil servant), 공복이기 때문에 공복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서 개혁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적인 것으로는 위압적인 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발하는, 주민고발제 같은 것을 제도화시킨다던가하여 이런 것을 통하면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점차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구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양영석 박사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주도 사람들이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인물 본위적인 투표를 대표적인 비합리적 투표라고 봅니다. 이걸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존의 정당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하지 못해왔다라든가 또는 기존 정당들이 제주도에 대한 비전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지지가 낮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들이 계속 지지를 얻고 정당후보의 지지도를 높이고, 정당의 귀속감을 높이려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제시하는 이런 방법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은 인물보다는 정당을 선호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자 : 그러면, 이상으로 도민 의식 구조 부분에서 정치 및 관광개발 의식 부분은 일단 발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사회 의식에 관한 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 의식은 김진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진영 교수의 발표)

사회자 : 김교수님의 사회의식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극복되어야 할 의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중점적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모두 논의를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소설가이신 한림화 선생님, 김교수님의 발표 중에 보면 우리사회도, 물론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만 세대간의 격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0%정도가 이 세대간의 격차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인데, 김교수님의 발표처럼 '신세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양쪽 세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격차의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화 : 이 유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세대간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고 책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세대건, 구세대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죠. 제가 아주 이중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세대와 구세대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차츰 하겠습니다만, 설문 내용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세대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앞서서는 세대격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세대격차는 세대적인 갈등에서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격차'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저는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세대는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란 개념이 없는데 신세대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세대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막연한 가상공간구조라고 생각하지만 신세대는 그들이 살아갈 공간, 시간적인 이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안되고,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세대는 신세대, 즉 자기 자식에게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질문은 대단히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행동양식과 의식이 같지 않기에 신세대와 구세대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에 맞춰서 구세대가 인식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게 있구나"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면서 구세대로서도 자기 가치관이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냥 충돌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두 세대에게 좋지 않고 겹을 줄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는 어느 시대나 있었고, 그 차이를 줄인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지 겹자체를 줄일 수는 없었다는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가정교육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냐는 그런 문항이 있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유대인 사회와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가정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족개념이 혈연, 지연관계를 가지고 가족결속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초가 가족공동체가 창출해 낸 것의 그 기초는 핏줄의식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선민의식, 즉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듯이 제주사회는, 다시 말하면 제사, 마을의 공동의례, 별초로 결속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제주도 사람들도 요즘 들어 신세대가 내보이고 있는 것이 개인중심주의이지만, 예전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없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사회는 지방화시대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예를 들어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젊은 세대는 금방 알고, 제주지역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상, 취미생활, 언어에서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야말로 격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이 하루 아침에 나타날 수도 없고 그 처방을 제시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만, 서로에 대한 인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세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위상을 상대방이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가질 필요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태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역어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집안과 집밖에서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른들의 이런 것을 젊은 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사고나 행동양식을 가지고서는 서로에 대한 겹을 메울 방법이 없기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구세대는 자기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신세대에게는 교육하기보다는 가치관 정립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 김진영 교수님의 발표 중에 불신의식이 우리 나라에 심각하다, 그 중에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의식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 국장님께 물어봐야겠는데, 결국 응답자의 반응은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여론선도층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인 신속, 공정한 보도, 객관적 보도, 사회통합 등이 지방화, 민주화 시대의 언론의 역할인데 응답자의 반응은 이 세가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현재 제주지역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있는데 문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인수 :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6·27 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해 빅 쓰리 (big three), 3인의 토론을 방송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상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2TV에서 인기 드라마 포청천이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청률이 낮을 걸 걱정했는데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포청천 시청률과 big three, 3인의 토론 시청률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토론 방법이 절제된 질문과 시간엄수의 답변으로 구성해 공

정한 기회와 절제된 질문을 통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신라호텔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60% 정도가 공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TV에 대해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생각과 이번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조사한 시점의 차이에서 그렇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제주언론의 선거 편향보도가 문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중 조작, 사진합성, 특정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서 언론에 대한 불신도를 아주 높인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시청자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의식으로 잠재해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흔히 제주도 말에 '소도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의견을 전파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도민들은 소도리쟁이를 나쁜 걸로만 인식해 제도적인 언론과 과거 동네에서의 그러한 소문성 언론을 구별하지 않아서 제도적인 언론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의식 자체가 방송을 불신하게 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변명 같지만 KBS는 내부적으로 공정방송보도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 과거 조사와 달리 의외라는 생각과 함께 차제에 시청자 분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KBS는 공영방송으로써 도민들의 이익과 제주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학회에서 국내방송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KBS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시청자 분들도 KBS를 믿어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문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응답자들의 반응이 언론에 대한 높은 기대라는 것을 받아들여 제주지역 언론매체들이 다같이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조사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서울에서 오신 양박사님,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계신 신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님 발표를 보면 우리 사회의 원로 부재의 문제, 인물 키우기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가 여론선도 세력간의 대립이나 갈등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이것을 화해와 화합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원로의 문제를 많이 제시해 봤습니다. 질문인데요, 원로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시는 데도 우리 사회가 인물을 키우는 데 인색해서인가에 대해 먼저 신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신행철 :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어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사회자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김진영 교수의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가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인수 국장님이 변명 삼아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전 질문이라고 해도 좋은데 김진영 교수께서 기회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한데 묶어서 보지 말고 활자매체하고 전파매체로 구분해서 조사했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자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원로라고 할 때 어떤 게 진정한 원로인가는 정의를 내리기 나름이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원로는 있다고 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용어를 써봤습니다. 즉 즉자적(卽自的) 원로는 있되 대자적(對自的) 원로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즉자적 원로라는 말은 우리 사회는 잠재된 원로가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는 원로집단이 있다는 의미에서 즉자적 원로는 있다는 겁니다. 원로가 없다는 말은 대자적 원로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자적 원로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드러난 원로, 인정받는 원로 그룹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원로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즉자적 원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자적 원로가 대자적 원로로 형성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까 질문을 던진 '인물을 키우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제주사회의 문화 풍토, 특성으로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사회는 평등사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주사람들은 평등적인 사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상하위계열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평등관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데에 연결되게 되면은 인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사회는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식인 등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일할 자리가 있어서 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사회는 이러한 자리가 부족합니다. 특히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기회 부족이 사람들 사이에 라이벌 의식을 낳고, 결국 이러한 라이벌 의식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자적 원로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세대격차와 관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로라고 하게 되면 평소 생각하기를, 오랫동안 생활해 가면서 훌륭한 경륜을 쌓고 인격이 갖춰진 분으로 보는데, 젊은 층에서 보면 어떤 인격을 갖춘 측면에서 보기 전에 한물 가고 흘러간 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구세대에 대한 갈등의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억되고 있는 계급간의 갈등보다 이

세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이 윗 사람, 원로급에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양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영식 : 우선 신상발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아픈 문제까지도 많이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공직자의 사명감부족이라든지, 관료주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고서 사회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사회라는 것은 청백리 집단, 머슴의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큰 머슴이고 공직자는 작은 머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제주도지사, 시장, 군수 등 이런 분들은 소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노른자위는 머슴이니까 주민을 잘 섬겨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 들어 일차적인 개혁의 대상도 공직자사회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공직자 풍토에서 볼 때, 그래도 제주도 공무원들하고 서울에 올라가 있는 700여명의 중앙 공무원들, 사실 누구부터도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한 걸로 칭찬 받는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제주인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엉뚱하게 잘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옥하면 나가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일벌백계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윗 물이 흐리게 되니까 밑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출신이 제대로 와서 똑바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낙하산부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찌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왔으니까 도지사의 권한대로 올바르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언론이 비판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우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처우 개선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봉급수준을 묶습니다만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해줄건 해주고 자를 건 자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전통적 시각, 즉 공직자들은 아무튼 나쁘고, 관료주의 의식이 팽배하며, 관존민비 사상이 많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공무원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칭찬할 건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의회를 통해서 엄히 다스리고 감사원은 뭐합니까. 그래서 공직자료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로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저도 신선배님 말씀대로 원로들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원로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정치인이 원내총무가 됐다고 하면 무슨 제주도에 인물 났다고 하

고 중앙에서 장관이 되어 된다는 등 모든 것이 정치일변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주도에 대통령권한 대행도 나왔는데 왜 원로가 없습니까. 이것은 영호남 갈등이라든지 폭넓은 한국정치의 잘못된 분야가 미치다보니까 솔직히 정치면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중앙무대에 활동을 잘못하게 되어있는 구조적인 게 있는 것입니다. 원로에는 정치인, 문화인, 예술인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잠녀할머니의 아들이 결국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을 딴 위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의 개념을 그 시대의 상황에서 각 분야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저 분의 말씀은 진짜다', '저 분의 행동은 본받을 만하다'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은 분명 제주도에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관장을 거친 사람, 어용적인 사회단체의 장이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원로입니까. 그런 제주도민을 원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학인 디오게네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그분은 "낮에도 등불을 들고 인물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밤에도 등불을 들고 원로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원로는 많은데, 즉 구슬은 많은데 꿰매는 작업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정한 대화의 채널을 넓히는 것도 원로 찾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로라고 하면 주위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계급장은 없으나 은퇴한 분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로라는 개념을 나이에 국한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60대 가까운 분들 중에 형성되고 있는 원로분들이 많습니다. 중앙무대의 학계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원로들을 찾아서 구슬을 꿰고 대화를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무슨 유익한 말을 들어야 하는 진정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 것이 문민도백의 또는 도의회의 사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로부터 곧은 소리, 바른 소리가 나옵니다.

연장선상에서 제주의 언론도 권위주의 시대에는 물론 곧은 소리, 바른 소리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문민시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정론직필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언론이 세 개라고 하면,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만나서 제주발전을 위해 곧은 소리, 화합하는 목소리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계의 소장층들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해서 곧은 소리, 바른 소리를 내는 데, 사주를 포함해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민에게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제주언론의 등불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회자 :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민의식조사 부분에서 정치·관광개발의식, 그리고 사회의식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민의 의식중에서도 문화 및 생활의식, 그리고 제주사회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제주정신의 정립에 관한 발

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항원 교수님으로부터 제주인의 문화 및 생활의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원 교수의 발표)

사회자 : 수고하셨습니다. 김항원 교수님의 문화 및 생활의식에 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토론자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주신라호텔 천이사님하고 한국은행 김영기 지점장님, 두 분 다 외지에서 오셔서 제주사회를 지켜보고 또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항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다보면, 우리 제주인들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상당히 강합니다. 두 분께서 지금 제주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제주문화의 어떤 독특성 또는 타지역 문화와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혹시 제주문화를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두 분께 부탁을 드려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천이사님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천병헌 : 좀 막연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타지사람으로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으니, 우선 저는 저희 회사에서 내가 제주도에 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제가 원했고 또 저는 제주도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마무리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선 상당히 공기도 좋고 물도 있고, 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지역은 제주도 말고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이런 조건에 살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축복인 것 같아서 제주도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거기에 문화 접촉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디보다 가장 살기 좋은 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을 쭉 보시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좀 부정적인 면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를 테면 편가르기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고자 한다는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제주도가 사람이 살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 사회를 나름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참 좋은 점입니다. 그게 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그 공동체끼리 서로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상당히 독립심이 강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주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 조정이 잘 안되는데 제가 먼저 토의했던 대로 양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런 기능은 사회원로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이후부터 상당히 구체화시켜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젊은 도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자의식이 강하고 문화에 대해서 긍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압니다. 관광지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제주도의 아주 독특한 문화를 소개해주어야 하는데, 도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호텔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천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갑갑해요.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한테 소개하면 제주도가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육지에서 아주 비싼 돈을 들이고 항공료도 내주고 숙박료도 부담하고 일부에서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관광객들한테 문화적인 접촉을 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보다 좀 개방되어져서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자랑스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재능,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린 마음이 도민들한테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김영기 지점장님 우리 제주의 문화, 또는 제주인의 의식과 관련되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영기 : 지금 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제주정신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저희들이 외지인으로서 봐서 참 배울 점입니다. 특히 제가 하나 놀란 것은 제주인들의 그런 책임감이랄까 독립심입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도 노모님께서 따로 밥을 해 드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제주인들의 독립심이 강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좋은 문화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인으로서 하나 느낀 것은 이제까지 쌓아온 문화전통, 또 그런 좋은 장점, 거기에다가 '열린 제주',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韓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봅니다마는, 제주지역 주민들은 너무 제주주민들끼리 그런 밀착적인 활동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도 제1금융기관과 제2금융기관으로 나누는데 1금융기관은 보통 서울에서 온 시중은행들이고 2금융기관은 현지에서 세운 상호금융금고나 기타 신용금고가 많습니다. 이

양쪽 업적세를 보면 육지부에서는 제1금융권이 당연 앞서고 제2금융권은 조금 못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선 제2금융권이 당연 앞서고 업적세의 신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제2금융권이라는 것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이 육지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단위 기관장을 할 때 활동범위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제1금융권의 경우 지점장들이 열대여섯명 되는데 2/3정도가 현지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서 사업하신 분들을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지에서 오신 지점장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좀 편협되고 너무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이 서울이나 육지에 갔을 때 제주분들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제주의 열린 사회이고 세계화나 국제화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제주의 문화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민 전체께서 '열린 제주'를 조금 표방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열린 제주', '열린 마음', '열린 사회'는 저희가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언론도 그렇고 각 사회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인의 문화, 제주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구조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다소 시정해야 될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역시 열리지 못한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김지점장님 말씀대로 더 열려야 되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분들, 제주에서 생활하신 분들과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림화 선생님, 조금 전에 천이사님께서 제주의 독특한 전통문화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항원 교수님의 발표를 보면, 우리 응답자들이 관광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통문화가 파괴된다는 우려와 또 한쪽 시각은 제주의 관광상품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자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응답이 나옵니다. 한선생님, 지금 보니까 평소에도 제주의 전통을 항상 생활화하셔서 오늘 '갈옷'도 입고 오신 것을 보면 누구보다도 제주의 전통문화를 밖으로 내어 보이는 데 상당히 앞장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림화 : 단적으로 말하면 제주도가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외형적인 관광개발, 다시 말하면 그동안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것만을 기초작업으로 해왔지 사실은 소프트웨어

(software)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를 가지고 관광산업화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없어진다, 파괴된다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라호텔 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주도 전통문화를 실연(實演)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면 안 온다라는 것, 그것은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적응능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광개발이 잘 촉진되면 될수록 전통문화는 오늘에 와서 되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관광상품화 될 수도 있지요. 앞으로 전세계가 앞서 토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지만 관광을 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길 의원께서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을 돌아보신 말씀을 하셨죠. 그 나라들은 안하는 것 같지만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상품화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음악 있죠, 비엔나를 가지고 마구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의 동양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모, 친지, 이렇게 지역적으로다 거기에 관광여행을 가는데 문화관광여행을 간다는 금지심을 갖고 가지요. 우리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하드웨어쪽은 많이 개발하려고 여러 자본을 가진 분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문화인들은 어떤걸 해야 되느냐하면 거기하고 손을 잡아서 제주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신문화도 키워야 합니다. 제주도는 신문화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는 신문화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정말 전통문화를 잘 고수하면서, 아까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입은 갈옷은 전통적인 갈옷은 아닙니다. 대부분 전통적인 갈옷은 노동복이죠. 근데 한복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광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주 고급 브랜드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뉴욕 패션가하면 대단히 알아주는 상품화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패션쇼를 와 달라고 유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온고지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되살리면 그런 전통문화야말로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며 재정적인 밑받침이 될 뿐 아니라, 폭을 좁혀서 말하면, 제주도민에게는 상당한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거죠. 고유한 문화가 정말 그대도 있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고 썩지 않습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어서 어디 뭐 여행 안 가보신 분이 별로 없다시피 하니까 그걸로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몇 천년, 몇 백년된 그대로의 전통문화를 공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다 조금씩 관광객 구미에 맞게 변형시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요, 정말 원형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칠머리당굿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전통문화도 폐쇄적인 면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죠. 그것이 뭐냐하면 제주도의

문화재로까지 지정되어 있는 고유의 마을제가 있습니다. 포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심지어 연구자들이 들어와도 차단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의식을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재현도 필요한 겁니다.

사회자 : 다음은 아까 이영길 의원님께서도 관광에 대한 뒷받침은 의회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문제가 개발과 보존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데, 다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앞으로 도의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의견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 아까 한림화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의 전수가 중간에 좀 약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부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속속들이 결성되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광분야에서 이러한 것을 접목시키는 데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제주도의 자연을 보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즐기는 관광으로 골프장이 있는데 그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 문화적인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끄러운 점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문화의 한 면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짚어보고 그래서 우리 나라 문화와 다른 점, 정서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와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약 52만 도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수준은 대단합니다. 미술, 연극, 문학, 무용, 이런 것 전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아주 오리지널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또 작품발표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관광하고 접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국으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교통관광국이라 했는데, 그만큼 기구개편에서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에 예총이라는 문예단체가 있고 또 민예총으로 민족예술을 지키자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단체라야 합니다. 서울에서도 볼 수 있고, 부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적인 문화를 담아내는 그러한 예술 단체들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발굴하고 그러한 것은 좀더 현대감각에 맞도록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작품도 개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도 관광국하고 그러한 단체간에 연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잘 결합이 되어 가지고 벌써 행사를 하는데, 이 '민족'이란 명칭이 붙게 되면 지하단체라 해서

잘 안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그러한 4·3의 문화적 연극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사물놀이
라든지 전부 하거든요. 제주도의 것들을 많이 담아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인식을
빨리 정리해서 이러한 것들을 키워내고 또 이러한 단체로 하여금 관광문화에 맞도록 보여
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이러한 것들을 했을 적에 제주도의 전통문
화가 살아나고 부활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제주도는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섬 전통문화하니까 얘기가 될 만한 것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섬 문화 축제 같은 것을 제주도
가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도민들의 지원을 받고 도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항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몇 개는 더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데 나중에 제주정신의 정립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화 및 생활의식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김진영 교수님으로부터 제주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주정신의 정립에 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교수의 발표)

사회자 : 김진영 교수님이 제주사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
주정신에 대한 정립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요약하면서 또 나름대로 제주정신에 대한 새로
운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교수님 발표를 가지고 종합토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종합토론에 앞서서 우선 21세기의 제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제주의 발
전방향에 관한 응답자의 반응을 조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께
여쭙볼려고 하는데 천이사님, 김지점장님, 양박사님,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세기
말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양대 축이었던 감귵과 관광산업이 어떤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감귵과 관광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말 지금 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제주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평화의 섬'
얘기가 나왔고 '국제회의산업'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분께서 21세기 제주발전 방향을 잡을
때 세계화, 지방화 속에서 대체로 지금까지의 발전 방향의 연장선이 아닌 뭔가 새로운 돌
파구를 어떻게 모색해 봐야될까 하는 점을 여쭙볼까 합니다. 우선 천이사님께서 먼저 말
씀해 주십시오.

천병헌 : 저는 김교수님이 정리하는 것을 쪽 보면서 정리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되어 갔을 때 제주도의 미래는 참 잘 정리되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발전방향도 빠르고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제주도의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브레인들의 집단이라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쪽 보면 제주도는 자연, 학연 등을 근간으로 정신세계가 구축되어 있고 활동도 그렇고 문화도 그런 배경에서 구축되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타지 사람들이 보기엔 제주도 분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이런 표현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상당히 감정적이고 수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발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면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수직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가족의 원로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가고 학교의 선배가 어떻게 리드해가면 거기에 잘 따르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공동체인데, 이것을 리드해 가는 분이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양박사님 말씀대로 제주도의 원로가 참 많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21세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이고 수직적이라도 그 분들은 좀 이성적이고 수평적인 사고의 전환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자기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미래는 우리의 힘하고 저쪽 공동체의 힘하고 합치면 그보다 훨씬 큰, 말하자면 시너지(synergy)효과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원로나 리더가 계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언론이 사실보도를 잘하고 사회에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잘하지만 대안을 제시 안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 같은 것이 설명되지 않고 기사화되면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그보다 더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을 거라는 의식들이 깔려 있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제주사회에서는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계속 남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회 같으면 학자들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조합하고 모으고 하는 분들의 역할이 따로 있을 텐데, 제주도가 이런 독특한 특성,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와 언론인, 기관장, 의회에 계신 분들이 잘 모여서서 그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수평적으로 조직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잘되면 풍요로운 제주의 미래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제주에다 뼈를 묻는다고 내려와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타지인의 역할로서 알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그 역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천이사님께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지점장님, 지금 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제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 저는 아무래도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경제적인 것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제주인의 정신, 앞으로 21세기에 제주가 가야 될 덕목이나 제주인의 바람직한 상(像)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절대적인 빈곤이나 먹을 걱정에서 벗어나야만이 이러한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가령 제주인의 축제를 열므로써 그러한 동향적 의식을 챙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주인의 바람직한 정신이나 문화 생활, 또는 정신생활을 정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 먹고 살 것에는 걱정이 없는 생활의 윤택함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이나 감귤산업 부분이 저희들 경제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산업은 내년부터 대기업들이 수입을 하게 되면 경쟁력 관계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 관광산업도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들어서 관광객 수의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질, 소비지출 성향이 많은 신혼부부랄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수입면에서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보험세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청이나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서 그 외국인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제주 내도(來道) 비율입니다.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 100명이 들어온다면 8명 정도가 제주도에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6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총생산액의 33%, 그 다음에 감귤산업이 그것의 반정도, 이것을 다 합쳐서 1조 5천억원이 됩니다만 이렇게 양 주축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을 하는 데서 과감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온 도민들이 설문 의식조사결과를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왜 제주도를 개발하는 데 제주도민이 되어야 하고 제주지역 자금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들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제주도민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신라호텔 천이사님하고 말씀을 해 봤습니다만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도움이 안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지역 경제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이 폐쇄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감하게 개방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 대기업이 투자를 하든, 외국자본이 들어오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취적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외자도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경제개발이 성공해서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외자도입을 할 때 대학생들이 매판자본이라 하여 그것을 매도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했지만, 그러한 외자도입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초기 발전 단계에 경제를 이끌어왔고, 그 결과를 볼 때 지금 현재 그 매판자본들이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을 잡아먹거나 잠식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주의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감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주도민이 되었건, 지역자금이 되었든, 외부자금이 되었든 과감하게 제주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주도민들께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자 : 예, 지금까지 두 분, 외지인이면서 제주에 와서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박사님, 제주도의 발전방향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양영식 : 예, 우선 21세기의 제주미래를 논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주인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인들의 영글은 목소리를 그 동안에 그야말로 차분하게 솔직하게 들었던 시간들이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민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새롭게 도를 중심으로 도의회도 마찬가지로지만, 제주인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경향이라고 봅니다.

도제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만 제주인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미나와 같은, 그때 고박사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하나의 예인데 준거집단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거집단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답을 찾기 위해서 참고서를 보듯이 참고집단인 것입니다. 제주국제협의회, 세계화제주추진협의회, 경신련, 아니면 제주홍사단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단체들의 목소리가 영글어야 한다고 보고 또 도의회와 제주도는 작은 공청회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금 의지에서 오신, 제주를 사랑하는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분명히 그렇게 인식이 돼 왔습니다. 제주개발 특별법에 대해서 매일 제주사람만 뭐한다고 그러는데 주체가 제주사람뿐이나, 이로한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되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한 수준까지 제주인, 그 다음에 제주에 와 있는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에 있는 외지의 기업까지도 자본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합의사항이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주장은 중앙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제주에서 세계로,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몰명하니까 위에서 정부가 해주는대로 하지, 제주사람들이 뭘 하나'하는 식으로 매도가 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인의 참다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 방안에 대해, 특별법도 설명을 잘했으면 우리 제주사람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개발은 하되 제주문화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자연환경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하는데, 따라서 신중하게 개발은 하자는 것이 우리 목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지금 제기하신 제주인의 외골수적인 개발주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개발문제는 21세기 비전과 더불어서 문화와 잘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에 가더라도 제주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관광보물섬이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이 문제가 되니까 관광 말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고성준 교수님하고 문정인 박사하고 현길언 박사가 주창한 것처럼 '평화의 섬'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을 놓고, 정상회담 유치도 그때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하면 정상회담, 따라서 정상회담을 할려면 기왕이면 제주도에 가서 해야지 하는, 이와 같은 세계정상들이 제주도말로 '니치름을 흘리는' 그러한 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마지막 흥련을 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마지막 통일의 정상회담을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서 하고 잠자는 것은 신라호텔에 가든, 한진의 칼호텔에 가든 어느 것을 택할지라도,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관광은 하더라도 평화의 섬, 또 이번에 많은 지혜로운 말씀이 나왔는데, 컨벤션 센타, 국제회의 산업, 비록 이번엔 안됐습니다만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제주 100만인의 공동체 의식을 뭉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서귀포에서 하자는 것에도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야죠. 따지고 보면 제주도 출신이 국가대표출신도 많고 지금의 제주의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관광에 하나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감귤산업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사는 시절에 '감귤 나무

한 그루 가지면 서울 공부하러 간다' 하는데, 이런 개념은 이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그래서 해양산업도 좀 생각해야 되고, 동북아의 물류센터 기지도 생각해야 되고, 첨단산업 같은 것도 개발한다고 하면 보강하는 의미에서 감귤산업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림화 선생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제 50년을 기해서 문화행사시리즈를 한 것은 정말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잠재요소가 있는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음악도, 한가지 예만 든다면 제주시향이 있는데 제주시향이 '오돌또기'를 연주하는데 정말 감동이더군요. 그러면 그러한 제주시향이 클래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돌또기'도 하고 '감수광'도 하고, '느영나영 두리둥실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구나' 이런 것도 하면 제주 만토반이 악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정도 탐동해변공연장에서 하면 그것 자체가 관광객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제주도 사람들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죠. 관광객만을 위해 제주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주관광, 제주문화의 주역은 제주사람들이 함께 가서 문화공간을 함께 누려야지 관광객들의 달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느영 나영' 그러면 관광객도 함께 하고,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가보니까 '비젠하우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 독일 통나무 맥주집에 가면 시민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민요를 부르면서 독일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제주도는 저릴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주도는 안 됩니까. 탐동해변공연장에 일주일에 한 번 제주시장이 나오면 안 됩니까. 연설할 때만 나오지 말고 그런 곳에 와서 문화의 참여를 보여주면 중앙에서 '슬기둥' 같은 젊은 국안인들 얼마나 연결이 잘되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공연을 보고 제주도의 백록민족예술단, 흥사단의 국악예술인들, 이런 예술인들하고 '슬기둥'하고 연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민요에 얼마나 보물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 주면 이것이 관광하고도 연계됨으로 해서 달려도 좀 별고, 우리는 자바사람, 캄사람이 아닙니다. 하와이 사람처럼 제주도인하면 토착인처럼 무슨 '갈중이'나 입고 다니는 옛날 식의 개념이 아니라 '갈중이'도 멋있게 입은 문화의 섬, 제주사람하면 문화인이 사는 그러한 섬으로 만들어야죠. 관광 섬, 평화의 섬, 문화의 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로 나가야 제주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고맙습니다. 이제 네 분 토론자들은 전부 제주인이시고 지금 제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진영 교수가 과감히 시도를 하고 있듯이, 21세기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주정신으로 다섯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냥'에서 부터 '신

삼무', '새수놓음', '혼저옵서예', '이어도정신'을 예시를 하고 있는데, 네 분 토론자께서 여기에 추가하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섯 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주정신 하면 하나로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양박사님은 느영나영 정신을 제시했습니다만 네 분 토론자께서 앞으로 제주인의 한마음이 될 정신적인 지주으로써 제주정신, 이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나 또는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에 대한 좋은 의견 보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인수 국장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 : 저는 정신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제주정신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된 정신들이 우리가 항상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정신들인데 이런 정신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제주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제주인입니다만 과거를 쉽게 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것도 좀 하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축적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제주를 거쳐간 훌륭한 기관장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 그때 지사가 제주의 언론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토론을 한 경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제주를 거쳐가고 우리 제주의 팬인 이런 분들을 움직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지원세력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원세력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 각 언론사에서 나온 대표들은 제주가 최적지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상공인들은 자기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선호했습니다만, 언론인들은 제주가 국제회의의 최적지이고 제주로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단결력, 또는 우리 도민들의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도 많은 선생님들의 지적들 가운데서 원로를 키운다는 말이 있었는데 원로를 키우는 문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키워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속담입니다만,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이 좀 출세하면 복돋아주지는 못하고 '그 친구 말이지 어렸을 때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코나 풀락 풀락 했던 녀석이 출세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이런 것이 제주도민의 의식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가 크게 보장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김영기 지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벌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주땅을 몽땅 사가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의 재벌들이 와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천이사님께서서는 제주신라호텔은 제주도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와

서 투자를 하면 제주땅에 있는 호텔이 발이 달려 도망갈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일터고, 제주도민의 재산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세계인들의 한 지구촌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사회인데 이런 것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이견 안되고 저견 안되고 우리 도민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 우리가 세계인들과 발맞춰서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에서 배격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함으로써만 제주발전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예 고맙습니다. 한림화 선생님, 제주정신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화 :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김영기 지점장님께서 '왜 개발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왜 제주도민들이 개발을 두려워하는지 그 정서의 바탕을 이루는 것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뀐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누누이 강조되는데 여기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 '너'가 아닌 '우리'들이 어떤 재산까지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계 아니면 공동목장을 통해서 마소를 공유함으로써 부(富)를 누렸습니다. 그 부라면 엄청나게 생각되었지만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만한 만큼의 생산성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붐이 불면서 제일 먼저 제주인이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것이 토지입니다. 그것이 공동목장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공동목장은 말 그대로 마을 전체가 아니면 공동체 집단이 갖고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한 두 사람이 개발업자와 결탁함으로써 전체 공동체 일원이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린 거죠. 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우리 자본으로 되겠느냐가 아니고, 우리도 개발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몫을,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담해야 되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몫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피부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지 개발자체에서 '외지인은 안된다', '외국자본은 안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부연해 봅니다.

사회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행철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행철 : 앞에서 발표하신 '신삼무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 추구'라는 주장을 하고, 그런 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어려운 우리의 환경을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삼무 생활원리'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주도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그 사회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가려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명칭에 정신이 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갑니다. 아까 김진영 교수가 예시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걸고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만 해도 삼국을 통일한 '화랑정신'이 있는데 어디 신라시대의 정신이 화랑정신뿐이겠습니까. 이 화랑정신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 정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는 '무사도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무사도정신이 일본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어서는 '젠틀맨십', 유럽대륙에 있어서는 '나이드(knight)정신', 중국에 있어서는 '중화사상' 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낸다고 하게 되면 그 속에 여러 개의 정신 항목들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돼야 좀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내걸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향해 갈 때 하나의 명칭을 가진 정신으로써 만일 여기 나온 정신 중에 미래지향적인, 소위 개척정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어도 정신'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정신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정신이고 앞으로 열린 사회에 있어서 세계화를 향한 그런 정신덕목으로 내세울만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정신을 하나 내세우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문제인데 여기에도 얘기하고, 구체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칭 '제주정신구현협의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제주정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기본 프로그램하에서 다시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 발표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만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제주정신에 대한 교육을 해야되지만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정무(政務)분야라고 보는데, 하나는 관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소위 행정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의식속에는 관지향적인 의식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거기에 따릅니다. 관이 행정의 의식구현에 관련해서 나서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득력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언론하게 되면 정의구현하는 것이 언론이지 사실을 왜곡하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왜곡된 언론이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구현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 제주정신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부각시켜 줘야 합니다. 특히 신문사나 방송사를 보게 되면 자기 회사에 관한 기사나 방송 중에 나쁜 부분은 잘 안합니다. 나쁜 것도 좀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자꾸 부각시키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훌륭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부분과 언론부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팀이 이만큼 방대한 영역을 조직적으로 연구해 냈다는 것에 대해서 경이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토론자의 이야기를 쫓 들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제발표를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항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항원 : 신교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구진의 공통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 신교수님은 '이어도 정신'을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다섯 가지 정신의 가치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제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상부상조하면서 더 큰 공동체이익을 기할 수 있는 정신이 '새수놓음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신을 내세우는 문제를 한 번 더 공론화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사회자 : 강근형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근형 : 저는 이번 세션(session)에서는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개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주체를 도민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서 대단히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도민주체 개발을 원하고 있구나하고 놀랐습니다. 아까 김영기 지점장님께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위해서는 누가 개발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과감한 개발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림화 선생님께서 역사적으로 왜 제주도민들이 주체개발을 원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에 와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한국은행, 제주지점 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와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제주도에 재투자하겠다는, 또는 실질적으로 제주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피부로 과거 경험을 보면 그냥 외지인들이 오면 자기 일이나 하고 돈은 가져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부정적이고, 대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언론도 좋고 공식적인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지기업들이 제주에 많은 혜택도 주고 있고 재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점차적으로 제주도민들도 꼭 제주도민만의 주체개발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21세기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결국 지역간의 경쟁체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을 도에 가져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문인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런 것을 평소에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머물렀던 '기관장'만 아니라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이 서울에 많습니다. 특히 이북에 고향을 둔 분들이 제주도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주후원회' 같은 것을 결성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루트가 되거나 제주 개발이나 자본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도 좋고 외지에 있는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합해서 제주개발정책의 미래를 끌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김진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영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21세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의 의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서기가 힘들다는 인식의 출발점에서 서서 이 연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의식전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21세기로 가는 중요한 흐름이 세계화라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세계화 또는 지구촌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주를 열려야 하고 열리기를 요구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방화라는 새로운 흐름도, 지방화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역시 세계로 나가야 하는 점이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결국 열린 제주, 열린 제주공동체가 21세기 제주가 지향할, 갖추어야 할 방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도민 의식 조사를 통해서 버려야 할 의식, 수용되어야 할 의식, 또 개발되어야 할 의식을 조망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중심을 갖고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오늘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 세계화시대에 제주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주정신의 정립이고 제주정신의 개발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민 의식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 그리고 객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